지상백고좌

봉선사 회주 밀운 부림 대종사

"僧行僧, 수행자면 수행자답게 행동하라"

10면에 이어

종단 후학들을 위한 당부

持戒는 의무… "계율, 생명처럼 여겨라"

"지계 없는 스님이 보살계 줄 수 있는가"

신년 맞는 불자 위한 덕담

"물은 모든 물고기를 어루만져 주나니

모든 동식물을 돌보는 물처럼 살아라"



밀운 스님이 주석처인 피우정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피우정은 '비를 피하는 정자'로 스님은 "인생도 비를 피해 머무는 정자와 같다"고 했다.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만나면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입자와 반입자는 다시 진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입자와 반입자의 생성을 쌍생성, 소멸을 쌍소멸이라고 부른다.

죽은 지렁이라도 풀숲으로 옮겨라

"종단의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말에 밀운 스님은 목이 마른 듯 물을 마시고 나서 입을 뗐다.

"출가자들이 출가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출가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勇猛精進)해야 합니다. 그 수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조계종 소속 승려들은 계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스님이 신도들에게 보살계를 내리고 지키라고 하면 어느 신도가 따르겠습니까? 진공묘유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굳이 사바세계의 오욕(五慾)에 욕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납승이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이유는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산 지렁이를 보면 풀숲에 옮겨줘야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지렁이를 방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렁이를 봐도 풀숲에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지렁이에게 몰려드는 개미들을 밟아죽이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불살생의 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밀운 스님은 포천 5군단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면서도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 본분의 첫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사로 진급해서도 포천 동화사에서 출퇴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매일같이 참선했다.

하루는 은사인 대오 스님과 동암 스님이 격려차원에서 동화사를 방문했다. 법당에서 동암 스님이 혼잣말을 했다.

"부처님이 시원치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밀운 스님은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왜 시원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 의문은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님만의 화두가 된 것이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참선하다가 문득 '불행불(佛行佛)'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밀운 스님은 동암 스님에게 찾아가 "부처님답게 행하면 부처님입니다. 이 세상에 시원찮은 부처님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암 스님이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후 밀운 스님은 대중에게 '불행불(佛行佛) 승행승(僧行僧) 인행인(人行人)'을 역설하고 있다. 부처님답게 행하는 것도, 스님답게 행하는 것도, 사람답게 행하는 것도 각각의 계율을 지킬 때 가능한 일이다.

인생, 비 피하는 정자와 같다

이내 밀운 스님은 이어서 방안에 걸린 붓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붓글씨는 '부목은 땔 나무 버리고(負木捨柴) 이 정자에서 비를 피하네(寄避雨亭). 태풍과 천둥소리에도 상관치 않고(不關風雷) 눈 뜨고 잠에 들리라(開眼睡眠)'는 의미였다.

개안수면(開眼睡眠)은 주석처 입구에 걸려 있는 편액이기도 했다. 태풍과 천둥소리에도 상관치 않고 눈 뜨고 잠에 들겠다는 것은 어떠한 시시비비(是是非非)에도 괘념치 않고 관여치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이다.

밀운 스님은 피우정으로 오기 전까지 '종단의 부목'이길 자처했다. 이사(理事)에 두루 밝았던 스님이기에 봉은사 소유의 토지 6만6115㎡(2만 평)를 매입할 수 있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영암 스님은 "허공에도 논을 칠 사람"이라며 칭찬했다고 한다.

불교계 숙원불사였던 경승제도의 초석을 놓은 것도, 전국의 강원들을 승가대학으로 제도화한 것도 밀운 스님이다. 특히, 밀운 스님은 1984년 8월경 총무원 부원장이자 총무부장으로서 당시 종정(성철 대종사)의 재가를 받아 10·27법난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15명의 스님을 사면 복권하는 데 앞장섰다. 스님은 봉선사로 주석처를 옮긴 뒤에는 봉선사 경내에 5000여 평의 크고 작은 연지를 만들고 연꽃을 심었다. '종단의 부목'이 땔감을 버리고 피우정에 들었으니 당시 스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된다.

"1988년에는 강북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에 동시에 총무원 현판이 걸렸어요. 당시 납승은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주지 소임을 내려놓고 봉선사로 들어왔어요. 당시 납승은 주석처의 당호를 피우정(避雨亭)이라고 명명하고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피우정의 사전적 의미는 '비를 피하는 정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잠시 비를 피해 머무는 정자에 지나지 않아요."

밀운 스님이 수행처를 피우정이라고 지은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태풍처럼 몰아치고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눈 뜨고 잠에 드는 수행 끝에 지혜의 꽃을 피우겠다는 자신만의 언약일 것이다.

스님의 법호를 내려준 것은 운허 스님이다. 밀운은 깊은(密) 정진(耘)을 의미할 것이다. 운허 스님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밀운 스님의 주석처에는 수덕사 방장 원담(圓潭) 스님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다.

'만물과 나의 근원은 다르지 않으니(物我元無異) 삼라만상이 마음의 거울 속에 있다(森羅鏡相中). 우주 전체가 적멸궁이니(十方寂滅宮) 참다운 부처는 멀고 가까운 경계가 없다(眞佛無遠近).'

필자가 글귀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40여 년 전 원담 스님, 고산 스님, 성수 스님, 정무 스님, 선래 스님과 함께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홀로 불치사(佛齒寺)에 가서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돼 있는 2층 향실(香室) 앞에서 108배를 올렸어요. 참배를 마치고 좌선에 들었는데 문득 '무원근(無遠近)'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무원근은 멀고 가까운 경계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밀운 대종사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납승이 느꼈던 뜨거운 법열에 대해 전했더니 원담 스님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밀운 스님 혼자 복 받았네'라면서 기뻐한 뒤 저 게송을 지어주었어요."

서로 돕는 꽃과 벌처럼…

필자가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밀운 스님은 방벽에 걸려 있는 또 다른 붓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산은 모든 짐승들을 가족처럼 끌어안고(山抱禽獸族), 물은 모든 물고기들을 어루만져 줍니다(水摩魚蟹羣). 새해에는 불자 여러분이 물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물은 식물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키우고 돌보지만, 그 식물과 동물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을 어루만져 주는 물의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밀운 스님이 결혼식 주례 때마다 들려주는 말이 있다.

"화소군봉(花召群蜂) 봉락화향(蜂樂花香) 화봉상조(花蜂相助) 종고불변(終古不變)."

꽃은 벌떼를 불러 모으고, 벌은 꽃향기를 좋아하니, 꽃과 벌은 서로 돕기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서로 나빠질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

밀운 스님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는 놈이나 중생의 망상을 일으키는 바로 그놈이 똑같이 나 자신"이라며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내가 생각을 돌이켜 심성을 정화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직인사를 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밀운 스님은 주석처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날이 추우니 주석처로 들어가시라"고 해도 대종사는 지팡이에 법체를 의지한 채 한동안 주석처 앞에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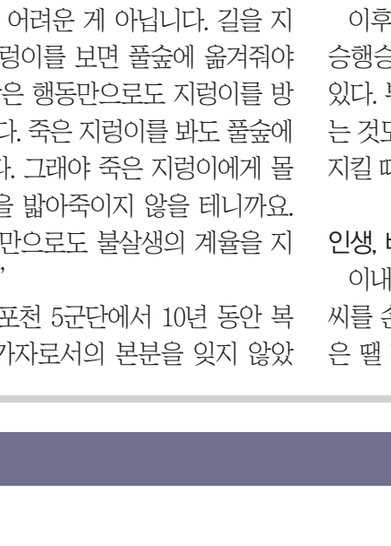
봉선사 산문(山門)에 이르러 뒤돌아서서 운악산을 바라보니 먼 듯 가깝고, 가까운 듯 멀어서 무원근(無遠近)이었다.

유응오 / 작가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